

2024 표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나에게 주리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 1장 3절]

애틀란타
새속복교회



2024년 10월 6일 청년부 예배

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경배와 찬양	내 맘의 눈을 여소서 하나님의 나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Behold
기 도		송강현 형제
성경봉독	사도행전 28장 1-10절	드라마 바이블
말씀선포	로마도 멜리데 섬도 목적지로 부르신 하나님	최동현 목사
헌금찬송	하나님의 부르심	다같이
결단기도		다같이
봉헌기도		최동현 목사
축 도		최동현 목사
교회소식		운영단

공동체 소식

1. 할렐루야! 새축복교회 뉴블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교회 / 사역 소식
 - 오늘 친교 | 송강현 형제, 장보라 자매 가정에서 준비하였습니다.
 - 가을 소풍 | 10월 19일 아미칼로라 폭포로 하이킹을 갑니다.
 - 결혼 | 어제, 10월 5일 송강현 형제, 장보라 자매의 결혼식을 축복과 은혜 가운데 올렸습니다.
 - 연주회 |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새축복교회 본당에서 가을맞이 클래식 4중주 연주회가 있습니다.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 다가오는 11월에 커플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Kevin Lee & Magdalena Ledezma (11월 23일 토요일)

예배 위원

DAY	대표기도	뒷정리
10/06	송강현	예수파셀
10/13	장보라	IE종아셀
10/20	강성경	럽셀
10/27	김하진	예수파셀

R. Schumann | F. Schubert | S. Rachmaninov | C. Franck | J. Brahms



Atlanta Soloists

Featuring Piano Quartet

Sonny Yoo, **Piano**

Ji Hye Chung, **Violin**

Ayoung Ryu, **Viola**

Heejung Jung, **Cello**

10.12.2024 ^{SAT} 5:30 ^{PM}

New Blessing Church

3109 Duluth Hwy, Duluth, GA 30096

새축복교회의 핵심 가치

말씀 공동체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는 공동체 (엡 4:11)
치유 공동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공동체 (엡 4:12)
양육 공동체	영적 성숙으로 장성하는 공동체 (엡 4:13, 15)
훈련 공동체	제자로 세우는 공동체 (엡 4:11)
선교 공동체	복음으로 땅끝을 품는 공동체 (엡 4:11)
셀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가 함께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 (엡 4:16)
중보 공동체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는 공동체 (엡 6:18)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장년예배	오전 10시 40분
주일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금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화-금 오전 6시, 토요일 오전 7시

헌금 안내

Venmo	@newblessingchurch
Zelle ID	newblessingchurch.atlanta@gmail.com

양육과 훈련 안내

- 새가족 교육 (3주)
- 세례자 교육 (5주)
- 결혼 학교 (4주)
- 통독 훈련 (매년 1번)
- 셀 성경공부 (매주 예배 후)
- 밀알선교회 (매주 셋째주 토요일)



[이 질문지 안에 있는 질문들은 “대화과 목상을 돕는 질문” 들입니다. 시험문제와 같이 기계적으로 모두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질문을 보다가 나누고 싶은 목상이 생긴다면, 주어진 질문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없는 질문을 여러분이 셀원들에게 던지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마주치고, 그 마주침을 셀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셀 모임의 목적이기에, 그 목적 안에서 자유롭게 깊이 있는 나눔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0241006 주일청년 설교요약 | 사도행전 28장 1-10절

로마도 멜리데 섬도 목적지로 부르신 하나님

첫째,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섭리와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14일간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 떠밀려 광풍 속에서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과 통제를 잃고 떠밀려 가던 배는 드디어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이르러 모래톱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멜리데 섬이라는 곳을 목상할 때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멜리데 섬 시실리 섬에서 남쪽으로 약 95km 에 위치한 섬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에는 “몰타” 섬으로 불리웁니다.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일행이 타고 있던 이 배가 정처 없이 떠도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끄시려는 궁극적인 행선지인 로마의 턱밑까지 와 있었던 것입니다.

“풍랑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갈 수 있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풍랑 때문에” 더 빠르게 갈 수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최선을 감사는 측량할 수 없는 섭리로 일해 달라고 맡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고집,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풍랑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눔 질문

Q.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역경이 우리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르게 우리를 전진하게 할 수도 있음을 말씀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후퇴라고 생각했지만 전진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어려움 때문에 더 빠르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풍랑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게 하셨습니까?

둘째, 하나님은 작은 친절을 통해서도 크신 구원을 이루십니다.

여기서 2절에 등장하는 원주민이라는 단어는 바르바로스 라는 헬라어 입니다. 우리가 아는 영단어인 바바리안의 뿌리가 된 단어입니다. 헬라인들은 헬라어 이외의 다른 나라 언어를 들을 때에, "바르바르" 거린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바르바로스 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쓰지 않는 다른 민족을 가리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통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섬주민이 그리스 문화권에 완전히 편입되는 과정 중에 있는 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보통 섬 사람들이 외부인들에 대한 경계심이 높다고 하는데, 이들은 파선된 배에서 겨우 탈출하여 젖은 몸으로 떨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동정심을 발휘했습니다. 따뜻한 불을 피우고 이들을 영접했습니다. 276명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필요를 바라보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동정과 친절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그것을 가리켜 "특별한 동정" 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친절은 결국 그들에게 모두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울 일행이 그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몰타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276명의 사람들을 향해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를 잘 가꾸고 그 안에 선한 선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경계심과 편견을 거두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바울 일행은 이들을 통해 물질적인 도움, 외적인 도움을 받고, 바울은 이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선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눔 질문

Q. 내 주변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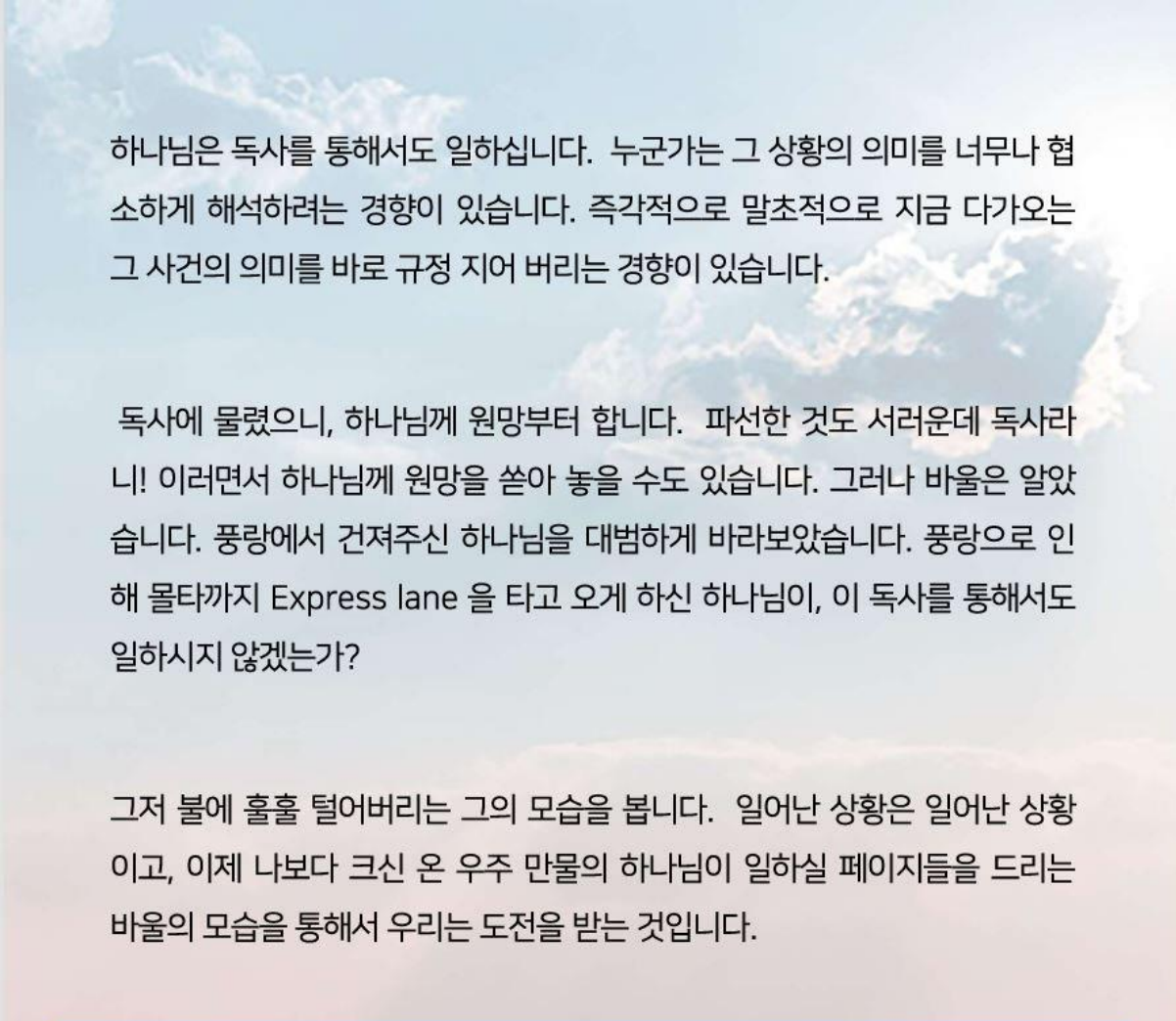
Q. 내 삶 속에 간절했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남을 도움으로써 스스로 돕게 되는 결과를 만난 적은 없습니까? .

셋째, 하나님은 독사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이렇게 겨우 얼어붙는 추위에서 몸을 덥히고 있는데 바울의 모습을 봅시다. 바울은 수수방관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무를 가져다가 불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바울은 대수롭지 않게 이 독사를 떨어버리고, 원주민들은 그가 죽게 되리라 생각하면서 지켜보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공의”에 대한 두루뭉실한 인식이 있었는데, 바울이 자기들이 모르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뱀이 그를 물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자 오히려 그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이 섬의 최고 지도자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에게 환대를 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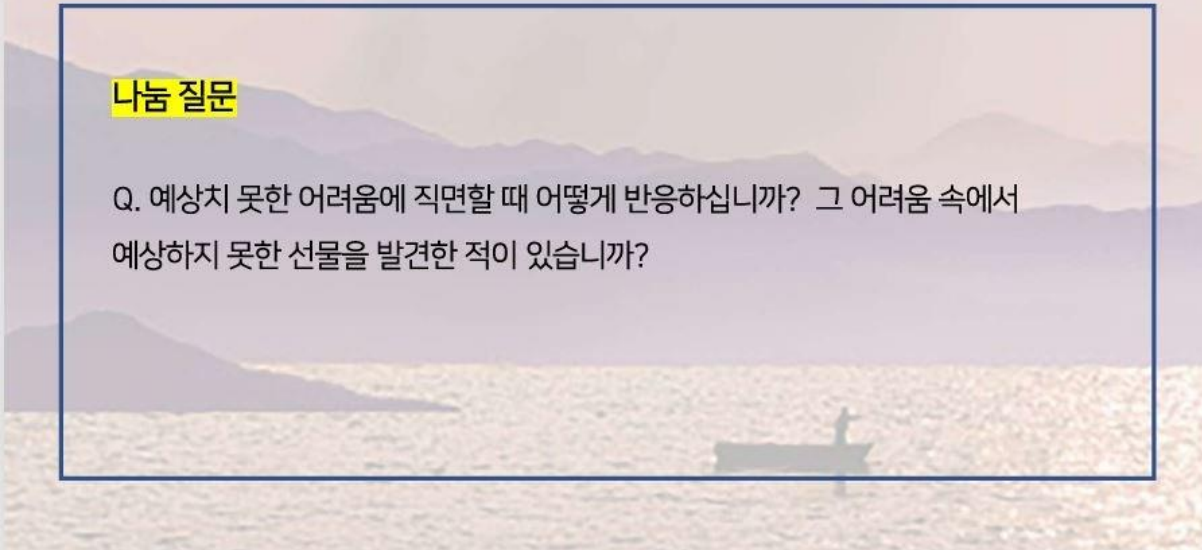
그런데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그 근처에 “토지”가 있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의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상황이 한가지 있습니다. 276명의 사람들이 모든 필요한 물품과 양식을 바다에 버리고, 물에 빠진 생쥐 꼴을 하고 이 섬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바울이 독사에 걸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보블리오의 환대를 받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보블리오가 이 276명 전체를 3일이나 환대하고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은 독사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누군가는 그 상황의 의미를 너무나 협소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말초적으로 지금 다가오는 그 사건의 의미를 바로 규정 지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독사에 물렸으니, 하나님께 원망부터 합니다. 파선한 것도 서러운데 독사라니!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았습니다. 풍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대범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풍랑으로 인해 몰타까지 Express lane 을 타고 오게 하신 하나님이, 이 독사를 통해서도 일하시지 않겠는가?

그저 불에 훌훌 털어버리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일어난 상황은 일어난 상황이고, 이제 나보다 크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일하실 페이지들을 드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나눔 질문

Q.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선물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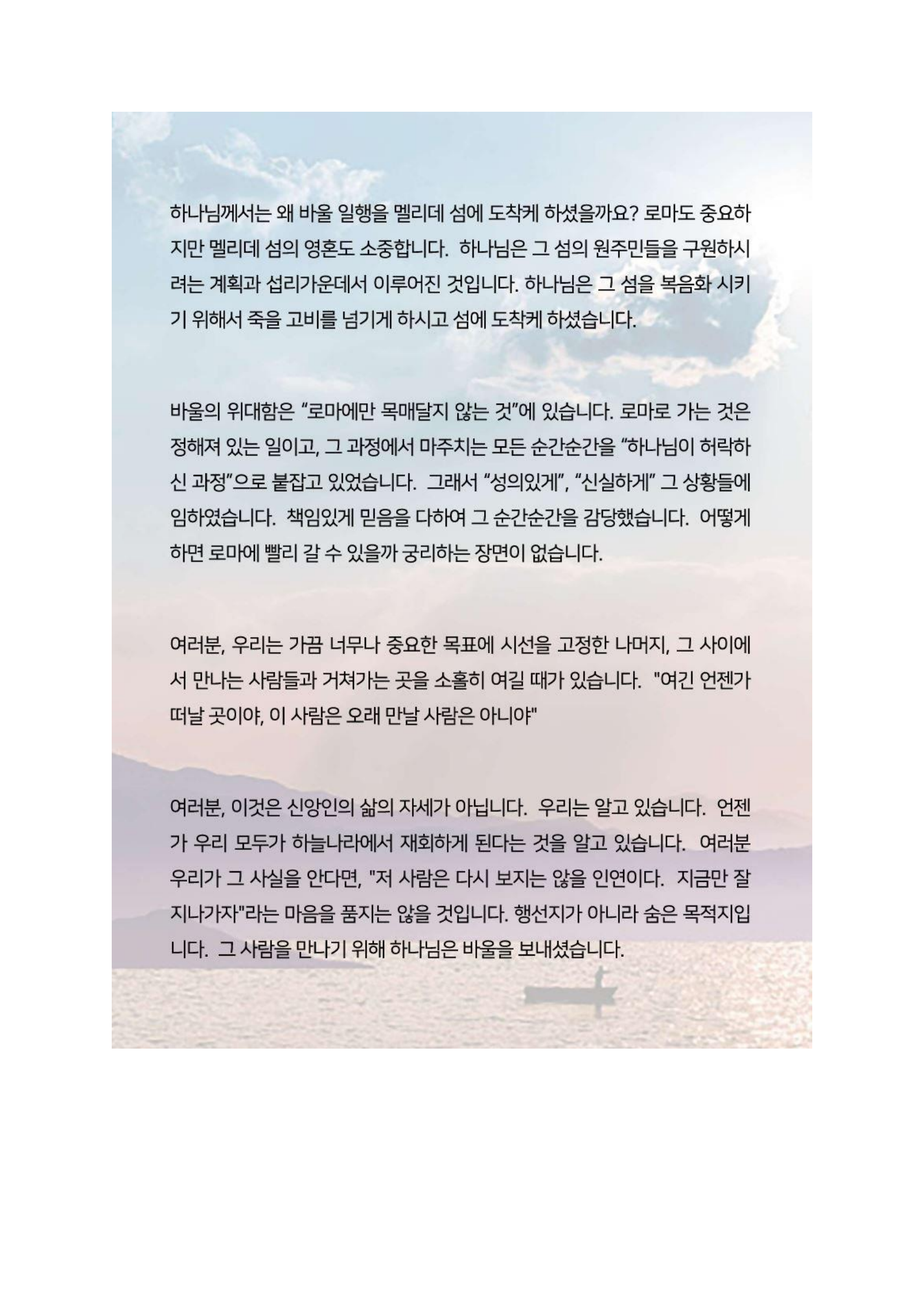
**넷째, 하나님은 우리가 거쳐가는 모든 행선지도 숨은 목적지라고 말씀하
십니다.**

우리는 흔히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기준으로 그 일의 의미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반대의 관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게 유익을 주는 곳을 만났을 때, “역시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라고 고백하는 것도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근본적인 인생의 흐름으로 두는 근본적 한계에 붙잡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멜리데 섬은 로마로 가기 전의 의미 없는 행선지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몰타섬을 보면, 인구의 90% 이상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오늘 7절에 등장하는 보블리오가 최초의 기독교 지도자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가장 규모가 큰 카타콤이 바로 이 몰타 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 선에서는 육지에 해당하는 로마에 있는 카타콤이 더 큰 것 같은데 이 곳이 더 큼니다. 전승에 의하면 보블리오가 멜리데 섬의 최초 감독이 되었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왜 바울 일행을 멜리데 섬에 도착케 하셨을까요? 로마도 중요하지만 멜리데 섬의 영혼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그 섬의 원주민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과 섭리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섬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섬에 도착케 하셨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로마에만 목매달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은 정해져 있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마주치는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의있게”, “신실하게” 그 상황들에 임하였습니다. 책임있게 믿음을 다하여 그 순간순간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에 빨리 갈 수 있을까 궁리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너무나 중요한 목표에 시선을 고정한 나머지, 그 사이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거쳐가는 곳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긴 언젠가 떠날 곳이야, 이 사람은 오래 만날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재회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저 사람은 다시 보지는 않을 인연이다. 지금만 잘 지나가자"라는 마음을 품지는 않을 것입니다. 행선지가 아니라 숨은 목적지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나눔 질문

Q. 여러분이 선호하지 않는 상황이나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편견에 의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편견을 어떻게 다루기 원하실까요?

Q. 여러분의 계획이 험클어 졌지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마주친 적이 있습니까?

Q. 내 삶에서 돌아가는 길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었음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을 나눠보세요.

Q. 현재 마주치고 있는 상실과 어려움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다섯째, 비워짐도 채워짐도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파선한 배를 다시 넉넉히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비워짐과 채워짐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깨닫고, 초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배는 결국 가까이서 보면, “배달사고”를 낸 배입니다. 물건을 싣고 가다가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배를 다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배달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은 배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나눔 질문

Q. 여러분이 삶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채워주심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Q.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을 채워주며 살고 싶으십니까?